

IT수출 수지흑자 동반최대치

10월 IT 수출이 전년 동월대비 17.4% 증가한 141.1억 달러로 잠정 집계되었다. 휴대폰 수출 증가 전환 및 반도체, PC 수출 호조로 국내 IT 수출(141.1억 달러) 및 수지(72.0억 달러)는 종전 기록치(수출: 135.6억달러, 수지: 70.1억달러) 이후 사상 최대치를 재 달성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IT수출(1,274억 달러)은 지난 해 연간 수출액(1,209억 달러)을 상회하였고, 동 기간 무역수지는 종전 사상 최대치인 2007년 604억 달러를 넘어선 65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 및 對중국 수출 확대로 전년 동월대비 33.0% 증가한 45.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휴대폰(26.3억 달러, 2.1%)은 스마트폰 수출 호조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수출 증가세로 전환하였다. 디스플레이 패널(28.9억 달러, 8.7% 증가)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단가하락으로 수출 증가율은 다소 둔화되었지만, 수출 증가세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스마트폰 수출은 ('10.1) 1.7억 달러, 4.8% ↑ → (4) 2.0억 달러, 50% ↑ → (8) 6.2억 달러, 378% ↑ → (10) 10.1억 달러, 243% ↑ 이다.

【 IT산업 및 전체산업 수출입 동향 】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10년				2009년				
	10월	(%)	1~10월	(%)	10월	(%)	1~10월	(%)	
수출	전체 산업	441.2	(29.9)	3,827.5	(30.4)	339.7	(Δ8.5)	2,935.3	(Δ19.8)
	IT 산업	141.1	(17.4)	1,274.0	(30.1)	120.3	(0.6)	979.4	(Δ15.6)
수입	전체 산업	372.0	(22.4)	3,467.8	(33.1)	304.0	(Δ15.8)	2,606.3	(Δ31.4)
	IT 산업	69.1	(22.0)	618.0	(21.6)	56.7	(Δ10.8)	508.2	(Δ21.4)
무역수지	전체 산업	69.1		359.7		35.7		329.0	
	IT 산업	72.0		656.0		63.6		471.1	

컴퓨터 및 주변기기(7.3억 달러, 11.1% 증가)는 태블릿PC 수출 효과로 지난 달 마이너스 성장(5.9

억 달러, Δ7.3%)에서 전년 동월대비 성장세로 전환하였다. 칼라TV(6.2억 달러, 27.0% 증가) 및 가정용기기(4.1억 달러, 20.0% 증가) 수출은 북미 및 아시아 수출 호조로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국가별 수출로는 미국(19.3억 달러, 42.2% 증가)은 휴대폰(특히 스마트폰) 수출 호조로 40%가 넘는 수출 증가를 기록하였고, 중국(홍콩포함, 60.2억 달러, 17.1% 증가), ASEAN(12.6억 달러, 19.1% 증가), 일본(7.1억 달러, 11.3% 증가), EU(18.5억 달러, 3.3% 증가)도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 '10년 10월 IT산업 주요 국가/품목별 수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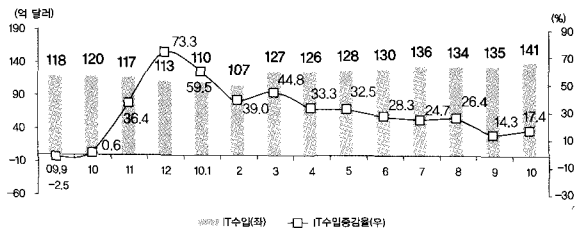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반도체		패널		휴대폰		전체	
전체	45.6	(33.0)	28.9	(8.7)	26.3	(2.1)	141.1	(17.4)
중국(홍콩포함)	23.8	(39.6)	19.1	(23.6)	4.5	(Δ45.4)	60.2	(17.1)
미국	3.3	(30.1)	0.4	(Δ55.2)	10.8	(79.4)	19.3	(42.2)
일본	3.1	(23.6)	1.2	(42.1)	0.5	(Δ14.1)	7.1	(11.3)
EU	3.7	(44.5)	4.2	(Δ0.1)	4.1	(Δ30.8)	18.5	(3.3)

한편, IT수입은 전자부품(40.7억 달러, 17.0% 증가), 컴퓨터 및 주변기기(8.0억 달러, 26.3% 증가), 휴대폰(4.9억 달러, 93.3% 증가) 등 주요 품목 수입 증가로 전년 동월대비 22.0% 증가한 69.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향후 IT수출은 중국, 미국, EU 등 주요 IT교역국의 경제 둔화 우려와 반도체, 패널의 글로벌 경쟁심화 및 단가 하락으로 수출 둔화가 다소 예상되나, 최근 스마트폰 중심의 휴대폰 수출 회복,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시즌 효과로 수출 증가세는 유지될 전망이다.

【 최근 IT산업 수출 추이 】



휴대폰(부분품 포함) : 26.3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2.1% 증가

휴대폰 수출은 일반 휴대폰(7.7억 달러, △39.2%) 및 부분품(8.6억 달러, △15.8%) 수출이 부진했으나, 스마트폰(10.1억 달러, 243% 증가) 수출 호조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글로벌 휴대폰 시장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성장 중이며 국내 업체의 스마트폰 시장 선전이 휴대폰 수출 및 세계시장 점유율에 반영되었다.

스마트폰은 6월 말 국내 업체의 스마트폰 본격 출시 이후 한분기 만에 스마트폰 세계시장점유율은 4~5%p가량 증가했으며, 3분기 스마트폰 세계 시장점유율은 사상 처음 두 자릿수 점유율을 기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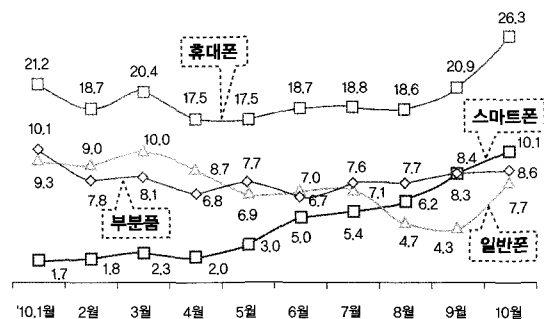
휴대폰 세계시장점유율(%)은 ('08) 25.6 → ('09) 31.0 → ('10.1Q) 32.1 → (2Q) 31.1 → (3Qe) 31.2 이다. 스마트폰 세계시장점유율(%)은 ('08) 4.1 → ('09) 4.2 → ('10.1Q) 5.4 → (2Q) 6.4 → (3Qe) 11.0 이다.

10월 스마트폰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243% 증가 하며 사상 처음 10억 달러를 기록하며 휴대폰 수출 증가를 견인하였다. 스마트폰 수출은 지난 달에 이어 일반 휴대폰 수출액을 3개월 연속 넘어섰고, 6 개월 연속 세 자릿수 성장을 기록 중이다. 스마트폰 수출증가율(%)은 ('10.4) 50 → (5) 134 → (6) 369

→ (7) 376 → (8) 378 → (9) 560 → (10) 243이다.

지역별로 미국(10.8억 달러, 79.4%)은 스마트폰

【 품목별 휴대폰 수출 추이 (억 달러) 】



수출 호조로 70%가 넘는 수출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중동(0.8억 달러, 48.7%), 아프리카(0.2억 달러, 31.4%) 등 일부 지역 수출도 증가하였다.

반면, 부분품 중심인 중국(홍콩 포함, 4.5억 달러, △45.4%) 수출은 부진했으나, EU(4.1억 달러, △30.8%) 및 일본(0.5억 달러, △14.1%) 수출 감소율은 완화되었다. EU 수출 추이는 ('10.9) 2.7억 달러 (△43.3%) → (10) 4.1억 달러(△30.8%)이고, 일본 수출 추이는 ('10.9) 0.3억 달러(△63.3%) → (10) 0.5억 달러(△14.1%)이다.

반도체 : 45.6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33.0% 증가

【 휴대폰(부분품 포함) 수출 추이 】

(단위: 억 달러, %: 전년 동월대비)

연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금액	25.8	24.6	18.4	21.2	18.7	20.4	17.5	17.5	18.7	18.8	18.6	20.9	26.3
(증감률)	(△31.3)	(2.7)	(12.8)	(△3.4)	(△21.0)	(△14.8)	(△28.2)	(△29.8)	(△25.5)	(△28.3)	(△18.4)	(△16.8)	(2.1)

반도체는 메모리(24.5억 달러, 37.6% 증가) 및 對 중국(홍콩포함, 23.8억 달러, 39.6% 증가) 수출 호

조로 8개월 연속 40억 달러 대 수출을 지속하였다.

D램은 PC D램 탑재량 성장률 둔화, 북미, 유럽 시장 등의 수요 약세 기조 등으로 단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으나, 경쟁국 대비 국내 업체의 공정 기술 우위, 다양한 고부가가치 제품 포트폴리오(서버, 모바일, 그래픽용 D램 등)를 바탕으로 전년 동월대비 56.1% 증가한 16.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편, 낸드플래시는 글로벌 경쟁심화에 따른 단가 하락(16Gb 단가, '09.10월 : 5.1달러→'10.10월 3.7달러)으로 전년 동월대비 8.9% 감소한 2.1억 달러이다.

지역별로 중국(홍콩포함, 23.8억 달러, 39.6% 증가), 미국(3.3억 달러, 30.1% 증가), 일본(3.1억 달러, 23.6% 증가), EU(3.7억 달러, 44.5% 증가) 등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반도체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동기)대비)

구분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반도체	34.3 (36.4)	35.0 (80.1)	34.4 (125.5)	33.0 (120.6)	33.5 (117.9)	40.4 (123.0)	41.8 (97.6)	43.9 (82.6)	43.8 (74.1)	46.2 (70.8)	47.4 (64.9)	48.4 (50.7)	45.6 (33.0)
메모리	17.8 (56.0)	19.4 (114.1)	20.0 (174.8)	19.6 (171.8)	19.3 (144.6)	22.8 (163.9)	24.6 (150.1)	26.1 (127.5)	25.3 (103.2)	26.4 (98.5)	27.9 (90.4)	26.6 (65.8)	24.5 (37.6)
D램	10.5 (69.1)	12.4 (141.1)	13.8 (186.4)	13.8 (215.1)	13.0 (195.9)	15.1 (204.1)	16.0 (201.3)	17.6 (179.1)	16.7 (141.8)	17.8 (119.6)	18.8 (116.9)	17.5 (86.9)	16.4 (56.1)
낸드	2.4 (86.1)	2.0 (78.0)	1.8 (132.4)	2.1 (110.0)	2.1 (92.5)	2.4 (81.9)	2.5 (77.9)	2.4 (40.2)	2.4 (48.6)	2.4 (53.4)	2.5 (26.9)	2.2 (4.3)	2.1 (Δ8.9)

※ 메모리반도체에 메모리 MCP 포함

패널(부분품 포함) : 28.9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8.7% 증가

패널은 중국 수출 호조로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최근 단가 하락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패널은 TV, PC용 패널의 재고 확대로 단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 수출 호조로 한 자릿수 증

가세를 유지하였다. LCD 가격(TV용 Full HD, 42인치, \$)는 ('10.5)335 → (6)328 → (7)323 → (8)300 → (9)285 → (10)277.5이다.

지역별로 중국(홍콩포함, 23.6% 증가)은 증가했으나, 멕시코(Δ38.2%), 브라질(Δ11.2%), 폴란드(Δ19.4%) 등 여타 생산거점에서의 수출은 감소하였다.

【패널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동기)대비)

구분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금액	26.6	24.9	26.3	24.6	23.3	26.4	28.4	29.1	26.8	31.9	31.9	28.7	28.9
(증감률)	(10.3)	(34.9)	(113.7)	(99.5)	(55.8)	(46.0)	(40.2)	(37.5)	(28.2)	(27.5)	(25.2)	(9.0)	(8.7)

칼라 TV(부분품 포함) : 6.2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27.0% 증가

칼라TV는 LED TV 등 고부가가치 시장 확대 및 유통 채널 강화로 수출 확대 중이나 북미와 유럽 등 주요 시장의 수요 약세 전환으로 수출 증가율은 다소 둔화되었다.

최근 TV업체 간 경쟁 심화로 TV 가격은 하락세이나, 국내업체는 LED TV 등 프리미엄 제품의 지속적 출시와 주요 유통채널 마케팅 강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였다.

LCDTV가격(42인치, \$)은('10.4) 1,046 → (5) 960 → (6) 993 → (7) 960 → (8) 939 → (9)898 → (10) 871이고, LEDTV수출 추이는('10.8) 0.2억 달러, 1374% ↑ → (9) 0.3억 달러, 594% ↑ → (10) 0.2억 달러, 274% ↑이다.

지역별로 중국(홍콩포함, 72.2%), 멕시코(26.3%), 헝가리(58.9%), 인도(205.0%) 등 주요 생산거점에서의 수출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 칼라TV(부분품 포함) 수출 추이 】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09.10	11	12	'10.1	2	3	4	5	6	7	8	9	10
칼라TV (부분품 포함)	4.9 (10.0)	4.6 (100.0)	5.1 (144.6)	5.3 (90.4)	5.1 (51.0)	6.4 (47.5)	6.9 (44.2)	6.6 (67.9)	6.5 (58.6)	7.0 (55.8)	7.0 (57.6)	6.6 (22.1)	6.2 (27.0)
LCD TV	0.6 (28.6)	0.6 (37.2)	0.6 (94.3)	0.5 (77.6)	0.3 (7.4)	0.5 (13.8)	0.5 (36.6)	0.6 (14.7)	0.8 (46.6)	0.6 (25.1)	0.6 (47.2)	0.6 (10.4)	0.6 (Δ11.7)
PDP TV	0.2 (Δ23.7)	0.2 (43.0)	0.2 (4.4)	0.2 (29.5)	0.2 (Δ17.5)	0.2 (20.3)	0.3 (15.7)	0.3 (Δ12.3)	0.3 (8.3)	0.3 (8.5)	0.3 (14.0)	0.3 (7.5)	0.3 (43.3)
TV 부분품	4.0 (11.1)	3.7 (123.2)	4.2 (175.5)	4.6 (96.7)	4.6 (61.6)	5.7 (54.2)	6.0 (47.8)	5.7 (84.9)	5.5 (65.2)	6.1 (64.1)	6.1 (63.2)	5.7 (25.5)	5.3 (33.5)

컴퓨터 및 주변기기 : 7.3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11.1% 증가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은 태블릿PC 수출 효과 및 프린터 수출 증가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지역별로 미국(1.2억 달러, 14.1% 증가), EU(2.0억 달러, 65.3% 증가), 일본(0.4억 달러, 29.3% 증가) 등 선진국 수출이 증가한 가운데, 중국(홍콩포함, 1.7억 달러, Δ21.0%)은 모니터 수출 부진으로 감소세이다.

가정용기기(4.1억 달러, 20.0% 증가)는 인도와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추이 】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09.10	11	12	'10.1	2	3	4	5	6	7	8	9	10
컴퓨터 및 주변기기	6.6 (Δ13.4)	6.6 (20.0)	6.6 (39.5)	6.1 (33.7)	6.0 (15.3)	6.9 (27.8)	6.7 (20.5)	6.2 (14.9)	6.5 (17.9)	5.8 (Δ8.8)	5.3 (Δ5.7)	5.9 (Δ7.3)	7.3 (11.1)
컴퓨터	0.6 (Δ18.5)	0.6 (27.6)	0.5 (16.1)	0.3 (57.8)	0.5 (228.8)	0.5 (72.8)	0.3 (Δ5.6)	0.5 (74.2)	0.8 (88.7)	0.6 (20.0)	0.3 (Δ15.1)	0.7 (118.2)	1.9 (203.6)
주변기	4.9 (Δ10.8)	4.7 (21.3)	4.9 (42.9)	4.8 (29.1)	4.4 (8.0)	5.2 (27.3)	5.2 (22.7)	4.7 (17.3)	4.5 (11.6)	4.4 (Δ9.0)	4.0 (Δ7.5)	4.2 (Δ14.6)	4.4 (Δ10.3)
표 기	1.7 (Δ2.9)	1.7 (46.6)	1.5 (38.8)	1.8 (56.5)	1.7 (37.9)	1.8 (40.5)	1.8 (32.9)	1.6 (27.5)	1.3 (3.4)	1.3 (Δ23.1)	1.5 (Δ2.9)	1.5 (Δ6.9)	1.5 (Δ8.5)
태블릿	0.9 (12.3)	0.8 (19.2)	0.9 (16.7)	0.9 (16.0)	0.9 (20.3)	0.9 (21.4)	1.0 (24.2)	0.9 (46.2)	1.0 (59.3)	1.0 (17.5)	0.9 (14.4)	1.0 (Δ2.6)	1.1 (21.0)
모뎀	2.2 (Δ21.1)	2.2 (10.9)	2.4 (62.9)	2.0 (18.8)	1.8 (Δ14.1)	2.4 (22.4)	2.3 (16.3)	2.0 (0.4)	2.2 (2.9)	2.0 (Δ10.2)	1.6 (Δ21.7)	1.6 (Δ27.5)	1.6 (Δ26.1)
기타	1.1 (Δ20.7)	1.3 (12.2)	1.2 (39.0)	1.1 (50.9)	1.0 (9.4)	1.2 (16.1)	1.2 (20.9)	1.1 (Δ7.7)	1.1 (11.9)	0.8 (Δ21.4)	0.9 (8.2)	1.0 (Δ11.8)	1.1 (Δ1.0)

중국의 성수기, 미국 프리미엄 가전 수출 호조로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냉장고(2.2억 달러, 22.0% 증가), 세탁기(0.6억 달러, 1.7% 증가), 전기밥솥(150만 달러, 13.9% 증가) 등 주요 가전제품 수출이 증가하였다. 인도(3,200만 달러, 56.1% 증가), 중국(홍콩 포함, 0.2억 달러, 28.6% 증가), 미국(1.1억 달러, 23.1% 증가) 수출이 증가를 견인하였다.

일차전지 및 축전지(3.7억 달러, 15.0% 증가)는 리튬폴리머전지(0.2억 달러, 246.4% 증가), 니켈카드뮴전지(15만 달러, 1148% 증가)의 수출 증가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셋탑박스(6,400만 달러, 0.2% 증가)는 미국(2,160만 달러, 22.1% 증가) 및 중국, 중동 지역 수출은 증가했으나, 유럽(1,480만 달러, Δ11.7%) 수출은 부진하였다.

중국(홍콩 포함) : 60.2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17.1% 증가

중국(홍콩 포함) 수출은 반도체(23.8억 달러, 39.6% 증가), 패널(19.1억 달러, 23.6% 증가), TV 부분품(0.6억 달러, 101.9% 증가) 등의 성장세 지속으로 4개월 연속 60억 달러 대 수출을 지속하였다.

반면, 국내 업체의 생산 거점 안정화와 휴대폰 부분품(4.3억 달러, Δ41.2%) 수출 감소로 휴대폰(4.5억 달러, Δ45.4%) 수출은 감소하였다.

미국 : 19.3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42.2% 증가

【 對중국(홍콩 포함) 수출 추이 】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09.10	11	12	'10.1	2	3	4	5	6	7	8	9	10
금액 (증명)	51.4 (14.4)	50.3 (49.7)	51.5 (122.2)	52.3 (110.6)	46.7 (56.2)	57.5 (69.5)	57.0 (56.3)	58.5 (55.9)	59.0 (42.5)	62.4 (35.2)	62.6 (33.8)	62.1 (20.8)	60.2 (17.1)
중국	39.8 (14.6)	38.9 (54.4)	41.2 (132.8)	42.0 (124.5)	36.5 (55.2)	45.8 (67.3)	45.3 (56.0)	45.9 (55.9)	45.8 (41.5)	48.5 (34.4)	49.2 (34.7)	47.9 (18.7)	47.5 (19.2)
홍콩	11.6 (13.8)	11.4 (35.4)	10.3 (67.7)	10.3 (68.2)	10.2 (60.1)	11.8 (78.6)	11.7 (57.2)	12.5 (55.6)	13.2 (46.2)	13.9 (38.1)	13.4 (30.7)	14.1 (28.8)	12.7 (9.6)

휴대폰(10.8억 달러, 79.4% 증가), 반도체(3.3억 달러, 30.1% 증가)의 수출 증가로 증가세 지속한 것이다. TV(0.3억 달러, 43.6% 증가), 셋탑박스(0.2억 달러, 22.1% 증가), HDD(0.1억 달러, 30.8% 증가) 등 수출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對미국 수출 추이】

(단위: 억 달러,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08.10	11	12	'09.1	2	3	4	5	6	7	8	9	10
금액	13.6	13.6	12.3	12.1	13.2	14.3	14.7	14.9	15.7	16.7	14.7	16.1	19.3
증감률	(△17.0)	(15.4)	(25.3)	(3.1)	(5.4)	(14.9)	(3.2)	(2.7)	(12.2)	(15.0)	(12.9)	(21.2)	(42.2)

EU로 18.5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3.3% 증가하였다. 반도체(3.7억 달러, 44.5%), TV부분품(1.6억 달러, 13.7%) 수출은 증가했으나, 휴대폰(4.1억 달러, △30.8%)은 감소율은 완화되었다. 반면, 패널(4.2억 달러, △0.1%)은 단가하락 심화로 수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일본으로 7.1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11.3% 증가하였다. 반도체(3.1억 달러, 23.6% 증가)와 패널(1.2억 달러, 42.1% 증가) 등 전자부품이 對일본 수출을 견인하였다.

동유럽(9.8억 달러, 10.3%), 중동(3.7억 달러, 39.4%), ASEAN(12.6억 달러, 19.1% 증가) 등 수출은 증가했으나, 중남미(7.0억 달러, △10.8%)는 패널 및 휴대폰 수출 부진으로 감소하였다.

수입을 살펴보면, '10년 10월 IT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22.0% 증가한 69.1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자부품(40.7억 달러, 17.0% 증가)이 IT수입의 약 60% 차지한 것이다. 반도체(29.0억 달러, 16.9% 증가), 패널(부분품 포함, 5.9억 달러, 19.2% 증가), 접속부품(3.0억 달러, 7.0% 증가) 수입이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태블릿PC, 넷북 등 수입 증가로 컴퓨터(주변기기 포함, 8.0억 달러, 26.3% 증가) 등의 수입도 증가세이었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확대로 휴대폰(부분품 포함, 4.9억 달러, 93.3% 증가)은 90%가 넘는 수입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국가별로는 중국(홍콩포함, 24.3억 달러, 33.5% 증가), 싱가포르(5.0억 달러, 8.7% 증가), 대만(8.8억 달러, 26.7% 증가) 등 화교권 수입이 IT수입을 주도한 것이다.

【'10.10월 IT산업 주요 국가/품목별 수입】

(단위: 억 달러,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전체	반도체	전자부품	기타
전체	40.7	(17.0)	8.0	(26.3)
중국(홍콩포함)	12.1	(24.4)	5.0	(30.1)
일본	6.2	(△2.7)	0.4	(6.3)
미국	3.6	(7.0)	0.6	(9.0)
대만	6.8	(20.2)	0.1	(13.4)

【최근 IT산업 수입 추이】

